

## “무료로 홍보와 네트워크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사이버 전시장 ‘온엑스포’

디지털콘텐츠 ‘사이버 박람회’라는 모토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온엑스포(www.onexpo.or.kr).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전자책, 게임, 무선인터넷 콘텐츠 등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분류해 인터넷상에 상설전시 함으로써 시공(時空)의 제한없이 제품전시 및 해외 마케팅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월간 <디지털콘텐츠>는 온엑스포 입점업체를 소개해 우수 개발업체를 발굴하고,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오숙현 온엑스포(onexpo.or.kr) 마케터

OnExpo  
HOT Company  
케이아이엠씨  
신기술의 수명은 짧지만  
응용기술은 영원하다!

케이아이엠씨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분야의 e-Book, m-Book, 모바일,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와 CD-ROM 타이틀 및 DVD,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 개발하는 전문업체이다. 1979년부터 전자 및 컴퓨터 관련 전문서적을 출판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1996년 멀티미디어 구성요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기 시작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제안한 ‘멀티미디어 구성요소 콘텐츠 개발’ 과제가 선정되기도 했다.

케이아이엠씨에서 말하는 멀티미디어 구성요소란 글자, 그림, 음악,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매체가 속성은 다르지만 모든 형태를 컴퓨터가 인식하는 각각의 데이터로 제작해 하나의 복합체로 합성 편집한 콘텐츠는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응용기술인 것이다.

그림, 음성,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없는 인터넷 세상을 상상해 보았는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세상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밋밋한 세상이었다. 이런 인터넷 초기 세상을 갱지에 인쇄된 책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2003년의 인터넷 세상은 음성·문자·그림·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혼

합된 컴퓨터 그래픽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의 컴퓨터에서는 문자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 인식(입력) 및 표현(출력)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문자 이외에도 음성, 도형,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매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멀티미디어’라 한다. 멀티미디어 매체들은



‘영상’과 ‘소리’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이들 자원을 처리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들을

처리하고 전송하

기 위해서는 ‘고속의 전송선로’와 다양한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한 ‘교환기술’, 그리고 ‘영상과 음성 신호의 처리기술’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는 영상회의·전자출판·가상현실·각종 오락·의료·교육·방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응용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취급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 멀티미디어 5가지 구성요소 편집 가능

케이아이엠씨가 개발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토탈시스템(KIMC : Korea Internet Multimedia Contents)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구성요소인 글자(txt·hwp·html), 그림(wmf·jpg·gif), 소리(wmf·jpg·gif), 애니메이션(gif), 동영상(avi·mpeg·rm·asf) 등을 제작할 수 있는 토탈 콘텐츠 제작 교육시스템이다.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캠코더 등 외부장비를 PC 1대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저작도구들이 수십만원은 기본이고, 전문 저작도구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해 가격을 현실화했다.

사용자 위주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멀티미디어 5가지 구성요소가 오프라인은 물론 웹에서 다운받는 시간 없이 실시간 실행되는 토탈 응용기술을 1명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 글자,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은 소프트웨어 기능의 3D 비트맵 형식에 소리와 동영상을 동급 형식에서 최고의 화질로 한 화면에서 멀티미디어 5가지 구성요소를 편집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아이엠씨는 기존의 e-Book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멀티미디어 구성요소를 m-Book에서 멀티미디어 구성요소의 다양한 파일 형식을 복합 편집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시청각 효과를 100%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복합콘텐츠는 온·오프라인에서 실시간 실행되며, 멀티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구성요소 콘텐츠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토탈 시스템(KIMC)에서 최적화 제작해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의 각 기능을 접목시키면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www.ekimc.com에서 멀티미디어 구성요소를 원클릭으로 구현할 수 있는 멀티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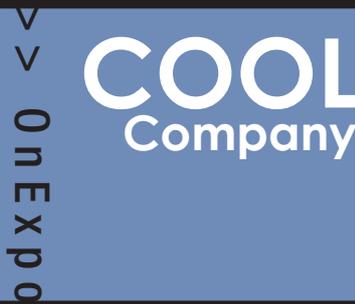
### ‘멀티미디어전문가’ 신SW대상 추천작 선정

케이아이엠씨에서 개발한 ‘멀티미디어전문가’ 솔루션은 일반인이 도서+CD롬+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토탈 콘텐츠 제작 교육시스템이다. 이 솔루션은 전자출판(DTP)·전자책(e북)·CD롬·인터넷방송·홈페이지제작 등에 관한 지침서인 ‘멀티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한번에 끝내기’라는 책과 CD롬 타이틀이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2002년 신SW대상 추천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케이아이엠씨는 인터넷사이트인 ‘멀티미디어캠퍼스(www.multimediacampus.co.kr)’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생은 책을 통해 멀티미디어 제작 방법을 학습하고 초급 및 고급과정으로 구성된 CD롬 타이틀을 통해 콘텐츠 제작을 실습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캠퍼스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전문강좌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술은 관련 신기술이 나오면 구기술이 되지만, 응용기술은 언제나 신기술만을 이용해 최고의 결과물을 개발 제작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수명은 짧지만 응용기술은 영원하다”라고 한다.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한 케이아이엠씨의 소프트웨어가 멀티미디어 복합콘텐츠 제작 업계를 선도하는 날이 도래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케이아이엠씨의 김형재 사장은 “국내외 멀티미디어 제작 툴은 문단 편집 기능이 미숙하고, e-Book은 종이책 파일 포맷으로 멀티미디어 구성요소 삽입 편집기능이 없기 때문에 복합콘텐츠 제작이 불가능하다”며 “양쪽의 장단점을 모두 해결한 복합콘텐츠 결과물로 제작한 응용기술 소스를 위지위그 기술로 프로그래밍해 사용자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전문적이면서 사용하기 쉬운 우수한 통합 툴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사용자들이 애용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업계를 천하 통일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조이비즈넷

## 조이매니저,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 도우미

2003년 1월 포털 사이트에서 적절한 카테고리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웹사이트 하나가 '조이매니저 (www.joym.net)'란 브랜드로 오픈했다. 아직 추가 개발 중이라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새로운 컨셉의 디지털콘텐츠는 가입한 회원들의 높은 로열티를 통해 콘텐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개**인의 목표와 시간, 인맥과 지식을 관리해주는 도구라는 새로운 컨셉의 디지털 콘텐츠 '조이매니저'를 개발한 조이비즈넷은 2002년 1월에 설립된 기업으로 이 기업을 아는 사람들은 '작은 기업이지만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전상탁 사장은 "창업 초의 바쁜 와중에서도 '고객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솔루션의 창조'라는 경영 이념을 수립하고, 모든 일에 고객을 우선 생각하

는 사고 체계와 소규모 벤처 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업무 시스템을 갖춘 것이 그러한 평가를 받는 배경이 됐다"며 "이는 LG전자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한다.

그런 업무 시스템의 하나가 바로 '교육시스템'이다. 직원들의 일상 업무는 출근 후 1시간의 자율학습으로부터 시작된다. 학습은 자율이지만 그 결과는 주간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게 해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와 지식 공유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대를 교육에 투자한 이 시스템이 조이비즈넷의 탄탄한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 웹에이전시에서 솔루션 개발까지

조이비즈넷은 웹솔루션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웹 에이전시를 수행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특징은 기본적인 개발기술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기법, 목표관리기법, 경력개발기획, 프로젝트 관리, 온라인 마케팅 기획 등 다방면의 지식을 바탕으로 e-비즈니스 통합 기획분야에서 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식을 지녔다.

조이비즈넷의 사업은 크게 솔루션 개발 부문과 e-비즈니스 통합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솔루션은 현재 베타 서비



스 중인 '조이매니저'가 있으며, 조이매니저를 기업용 솔루션으로 확장한 기업지식관리 포털(EKP) 개발 또한 진행중이라고 한다. e-비즈니스 통합 부문은 조이비즈넷만의 노하우와 소기업의 신속함, 그리고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소수의 정예 멤버를 통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외부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 웹프 매니지먼트 시스템 '조이매니저'

목표를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목표를 관리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능력과 실천하고자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때 만약 누구나 쉽게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능력이나 의지 부족을 보완해 주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와 같은 컨셉을 실현한 디지털 콘텐츠가 바로 조이매니저(www.joym.net)이다.

조이매니저 시스템은 인간의 효율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목표관리', '시간관리', '인맥관리', '지식관리'를 지원하는 4대 도구와 '커뮤니티', '지식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시스템 다이어리인 '조이플래너'와 연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중 현재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인 목표관리 시스템은 동기부여이론, 목표관리이론, 경력개발이론 등 심리학과 경영학의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진단과 평가, 생애가치목표와 업무목표의 수립을 지원하며,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부가할 예정이다.

조이매니저의 인맥관리 콘텐츠는 본인의 주소록을 상대방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자동주소록 시스템과 본인의 주소록을 그룹 구성원에게 통째로 전달하는 그룹 주소록 전달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다양한 콘텐츠의 추가를 준비 중인 지식관리시스템은 본인의 스킬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식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조이비즈넷은 조이매니저의 뛰어난 매니지먼트 기능과 그룹웨어 및 지식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EKP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솔루션은 사용자, 즉 기업 임직원들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프로세스가 설계돼 있어 임직원 스스로가 목표를 관



리하게 해 직원 개인의 발전과 그를 통한 조직의 성과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 매니지먼트와 지식관리시스템 결합한 EKP 개발

리스크가 큰 창업 초기 IT 기업의 장기 목표는 추상적일 수 있는데, 조이비즈넷은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단기와 중기의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목표는 성공을 꿈꾸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비즈니스맨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이매니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이매니저는 단순하게 즐기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고객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디지털콘텐츠로 앞으로 고객의 꿈을 현실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부분의 보강을 준비중이며, 학계와 연계한 콘텐츠 연구소의 설립을 기획 중에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목표는 중기적인 것으로 EK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고객에게서 그 유용성을 명확히 인증 받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e-비즈니스 통합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경험과 개발자금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조이비즈넷 전상탁 사장은 "고객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솔루션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잊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